

# 남원 웰빙 생활목기로 목공예산업 '부활'

### 市 목공예 전수·교육 적극 지원...컵 등 생활품 개발 옷칠 공예관 리모델링...옷 삼푸 등 전시·체험 운영

남원시가 목공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네트워킹, 신제품 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창조지역 사업 일환으로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기(祭器) 및 식상(食床) 위주의 목공예 산업에서 생활 목기로 전환하기 위해 주발 세트와 컵 세트 등 다양한 주방용품 개발도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옷칠을 활용한 삼푸와 린스 등 마용용품을 비롯한 정제옷칠 튜브화를 이루는 등 다양한 분야에 옷칠을 접목시키고 있다.

옷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유지에 옷나무를 식재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옷칠 공예관을 리모델링해 옷칠 체험과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컵과 찻잔 등 생활용품을 전시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옷칠공예관 운영을 맡고 있는 박강용



생활목기

씨(무형문화재 옷칠장)는 “옷칠공예품을 사용하면 건강에 매우 좋다. 건강과 힐링에 관심이 많은 21세기 최고의 미래산업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 목공예 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제기와 식상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남원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후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늘고, 값싼 중국산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생활목기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해 남원 목공예 산업의 제2의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남원시가 목공예 산업의 부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기에 옷칠을 하고 있는 박강용 씨(무형문화재 옷칠장). /남원시 제공

## 전남 소식

### 나주 '안아주세요 아나주배' 출시

#### 브랜드 단일화...박스같이 방지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나주 배 브랜드를 단일화했다.

나주시는 고품질 나주 배 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안아주세요 아나주배' (사진)를 통합브랜드 네이밍으로 채택, 추석명절부터 본격 출시한다.

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나주 배 원산지 표시 위반(일명 '박스 같이') 행위 근절과 고품질 나주 배 명성 유지를 위해 '공동선별 출하용'과 '농가 출하용' 두 종류를 확정했다.

시는 그동안 나주 배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믿음 주는 소비자 결의로 더 다



가서기 위해 생산농가와 지역 능협장과 간단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포장재 디자인 통합계획을 수립 진행해 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브랜드 출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고품질 나주 배 명성을 더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무안 연꽃축제 성료...20만명 방문

#### 농·특산품 등 매출 2억원 성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백련(白蓮) 자생지인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열린 '2014 무안 연꽃축제'가 20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폐막했다.

무안군은 “이번 축제기간(14~17일)이 막바지 연휴기간과 겹치는데 어린이 물놀이장과 파도풀장 개장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축제장을 많이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과 16일에는 서해안고속도

로 일로 나들목에서 연꽃축제 행사장까지 4.3km 구간이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축제 개최에 따른 직·간접 효과도 작지 않다.

축제기간 황토 농·특산품 판매장은 5000여만원의 매출을, 행사장내 6곳의 향토음식관은 1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축제현장을 찾은 뒤 일로읍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는 관광객도 적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세일골

### “행복을 주는 소방행정 펼치겠다”

#### 문 태 후 영암소방서장

“행복을 주는 위민(爲民)행정, 현장 중심 확인행정, 배려하는 소통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영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영암소방서 문태후(58) 신임 서장은 “영암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 산업시설의 안전과 기업투자 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순천 출신인 문 서장은 동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방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0년에 소방직에 입문해 순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전남소방본부 방호·예방담당, 보성소방서장, 화순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용골산 돌길 걸으며 섬진강 풍경 만끽하세요

####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어치계곡~용골 3.5km 코스

섬진강의 풍광을 감상하며 걷는 도보 길인 순창 용골산에 만들어졌다.

순창군은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동계면 어치리 용골산(해발 646m) 일원에 트레킹 길을 최근 조성했다.

트레킹 길은 어치계곡부터 용골까지 3.5km의 길을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했으며, 실제 돌길 탐방로는 산에 있던 돌들만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 돌길 탐방로는 옛 산길을 걷는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덩어로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길이다.

또한 미르 광장과 귀퉁 광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용골산 트레킹길 조성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섬진강 주변에 자생식물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조성 사업을 통해 용



순창군 동계면에 자리한 용골산을 찾은 등산 애호가들이 '용골산 트레킹 길'을 걷고 있다. 3.5km 길이의 트레킹 길은 어치계곡부터 용골까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했다. <순창군 제공>

골산과 섬진강 주변을 강천산과 견줄만한 제2의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트레킹길 조성으로 용골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용골산의 산림문화가 용

합된 순창만의 트레킹 코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설 보완과 홍보를 통해 이곳을 산림치유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시민장학생 확정

#### 고교·대학생 154명 2억원 지급

(재)정읍 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은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4차 이사회를 갖고 2014년도 장학생 154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50명, 전문대학생 16명, 4년제 대학생 88명으로 총 154명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전문대학생 150만원, 4년제 대학생 180만원 모두 2억 7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2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정읍 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41명의 학생에게 14억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정읍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

NAVER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 한국간접원 김경자  
· 보다 20% 감액  
· 매매계약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청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